

## 빛으로 오신 하나님

### 요한복음 1:9-13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닮은 빛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게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엘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이 빛을 가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뜻을 안 뱀이 함께 인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이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들을 가둬두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이에 사람은 자신안에 있던 빛을 나무 뒤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밤처럼 어떤 빛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다시 낳았지만, 여전히 빛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죄인줄도 모르고 어둠속에서 태어났다 어둠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빛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왔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더러움과 안 좋은 생각들이 드러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먹구름 처럼 뒤덮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 다시 온 빛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